



박 중 세  
인쇄산업신문 발행인

## 2003년도 인쇄산업의 현황 및 전망

2003년도 인쇄업계 전망은 흐린 후 차차 맑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인쇄산업은 전통적인 수주산업  
이고 일감인 인쇄물이 늘어나야 가동률이 올라가  
는 속성에서 비롯되고 있다. 인쇄물 증감의 유동  
성은 우리 산업계와 정치적 환경 등 여러 가지 복  
잡한 미시 경제적인 함수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넓  
게는 거시경제와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 1. 경제환경의 변화

인쇄업계도 이제는 독자산업의 경제적 마인드  
를 지녀야만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과거 70~80년대처럼 우리산업이 팽창하던 성  
장기에는 설비증설이 곧바로 경쟁력향상으로 연  
결돼 성장의 소중한 에너지원으로 작용했으나  
WTO출범, FTA보편화 등으로 세계경제와도 관  
심을 가져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거시경제는 미국과 일본, EU 등 전  
통적인 선진교역국가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최근 급성장한 중국시장을 비롯하여 베트남, 인도  
네시아 등 동남아국가에까지 영향권에 들었다.

여기예다가 미국의 이라크 공습임박 등 폭발성  
을 지닌 사건까지 합치면 인쇄산업의 경제영역은  
엄청난 범위를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

다. 거시경제가 간접적인 영향권에 있다면 미시경  
제는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 미시경제는 주로  
국내 경제환경 변화이다. 정치적으로는 대선이 가  
장 큰 행사였으며 가계대출축소, 현금카드 사용범  
위축소 등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털어내는 일련의  
작업이 소비위축으로 움츠리게 한 요인이 되었다.  
한국은행과 KDI 등 국책기관과 삼성, LG, SK 등  
대기업 연구소들이 발표한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  
제 성장률은 평균 5.3% 정도에 이르고 있다.

대선 등의 영향으로 정책결정이 다소 미뤄진 전  
반기에는 현황파악이라는 실정에 밀려 성장추진  
속도가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나 새 정부의  
행정력이 활력을 찾을 후반기에는 인쇄산업도 성  
장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2. 자생력확보 관건

아무리 산업이 활성화돼도 인쇄산업이 진정한  
성장을 이룩하려면 수주, 생산, 재무관리 등 선진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현재 생산환경은 과거  
와는 판이하게 다르고 인터넷 등 정보화의 영향으  
로 경기순환이 불규칙하며 시장흐름도 매우 급변  
하기 때문이다. 또한 똑같은 설비와 인력을 보유  
한 상황에서 차별화된 전문화와 특성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형의 재산인 서비스향상과

기업 이미지향상, 숙련된 기술자 보유 등 품질을 기초로 한 고객만족경영이 우선 정착되어야만 재수요가 이뤄져 기동률 증가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설비증설에 대한 욕구도 과거와는 다르다.

인쇄물증가를 분석한 후 경영성 제고를 파악하고 있으며 기업 이미지 제고와 향후 전망까지 파악하기에 이르렀다. 기술인력이 절대 부족한 것이 업계 현실이지만 전문성 정착여하에 따라 업체마다 다양한 형태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영세 소규모업체가 대부분인 인쇄업계는 누가 과연 튼튼한 자생력을 확보했느냐에 의해 뚜렷한 성패가 결정날 것으로 전망된다.

### 3. 전문경영인이 주도

설비도입은 대개 생산성 증대를 통한 경쟁력강화에서 비롯되고 있다. 누구나 설비를 구입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 현실점에서 비교 우위를 확보하는 길은 내수는 물론 수출까지도 넘보는 정책적 아이디어와 마인드를 지닌 경영자 밖에 없다.

생산환경이 날로 투명해 지고 표준화된 작업환경을 가진 한국적인 여건에서는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은 바로 그 기업의 미래를 조명하는 소중한 평가의 기회로 다가서고 있다.

인쇄산업도 일반 기업처럼 Input(투자 및 주문)→Process(제조)→Output(생산) 등의 경기 순환을 가지고 있으며 재무관리 등 정책과 비전을 요구받고 있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생산환경을 밝고 투명하게 하는 지혜는 탁월한 경영관과 리더십에서 비롯되고 있다.

시대를 리드하는 경영철학 없이는 인쇄업계를 더 이상 이끌 수 없으며 정부에 의한 강제적 구조조정보다 시장에 의한 자율적인 구조조정 속에서

되보나 정화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인쇄업계는 앞으로 선진 경영시스템 정착 여하에 따라 극명하게 양극화현상이 나타날 것이며 이런 현상은 당분간 꾸준히 지속되리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우수업체들은 생산에 탄력을 받아 빠른 속도로 이익이 증가하겠지만 하향세를 걷는 업체들은 폐업의 길로 접어들어 소리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인쇄업도 이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며 투철한 경영의식과 사명감을 가진 전문경영인이 업계를 주도하는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대외 홍보방법도 변모해야 한다.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나 '인쇄문화인' 등 지금까지 인쇄업계가 널리 사용해온 단어들은 인쇄산업발전을 위한 수단과 방법론은 될 지 모르나 실질적인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행정적인 방향으로서는 추상적인 면이 강하다. 인쇄산업도 기업적인 마인드에서 기술 인력난을 비롯해 자금난과 수주난 등 파생되는 기업환경을 풀어 나가야 한다. 기업적인 마인드를 지닌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간의 빈익빈, 부익부현상은 더욱 심할 것으로 분석되면 규모가 큰 인쇄사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생산 활동을 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으로도 M&A로 덩치를 키운 업체들이 원자재 구매와 생산활동에서 원가 절감을 실현시켜 가격적 경쟁력을 확보했고 안정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성실한 서비스와 대외 이미지를 향상시켜 온 경우를 보아왔다. 규모의 경제가 생산활동을 주도하고 있다는 뜻이다.

인쇄기업도 선진국의 대형 인쇄사처럼 대기업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우수인재가 얼마나 우리 인쇄업계에 유입되느냐에 따라 그런 결과의 속도가 결정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